6.15주간

주체90(2000)년

6.15WEEKLY

제4호(7.12~18)



결의

6.15공동선언 한돌을 맞이하는 청년주체주의자의 맹약

노작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특집 - 반조선일보

6.15공동선언실현투쟁

기아노조, 작업장에 단일기 걸어 통일기원

단죄규탄

민족자주통일의 장애를 제거해야

일본교과서왜곡규탄

조국통일3대헌장

연방제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도

6.15주간

6.15WEEKLY

제4호(7.12~18)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1.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승리의 비결이며 동력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의 위대성을 이남민중 속에 광범히 선전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고조되고 있는 흠모의 대하가 더욱 높이 굽이치도록 한다.

2.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민족대단결경륜을 이남민중 속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각계 민중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자각적으로 총궐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사상적 바탕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는 한민전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여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주체사상학습소조가 수많이 건설되도록 한다.

4. 우리는 통일연대를 강화하고 여타 통일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범민련과 범청학련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각급 대중조직과 전선조직이 남북간의 하층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사업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전선운동이 거족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5. 우리는 한총련과 한청을 통일적 학생운동조직, 청년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키는 한편 전국연합, 민주노동당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인 민족민주전선을 비약적으로 장성발전시키도록 한다.

6. 우리는 학생운동대오와 민족민주전선, 지역통일전선내 분파주의를 청산하는 사상운동을 운동대오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7. 우리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한미군철수투쟁에 호응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하루속히 범국민반미항전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8.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전면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민중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결실을 이룩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철저히 진압하도록 한다.

9. 우리는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하며 청년주체주의자대오를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강위력한 지도핵심대오를 건설하도록 한다.

10.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실현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머물지 않고 통일변혁운동을 계속 전진시켜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건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광장에 높이 모시는 감격의 그날을 앞당길 것이며 21세기 통일강성대국건설도 진두에서 개척해 나아갈 것이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6월 15일

서울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축하문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한 돌을 맞이하며 ≪6.15주간≫이 창간된 것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6.15주간≫이 창간된 지 불과 한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형의 출판물이 가지는 참신성과 입체성, 신속성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6.15주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위업 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실현투쟁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이후 통일애국세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민족통일전선운동을 촉진하는데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6.15주간≫은 6.15공동선언실현이라는 주제를 인터넷 피디에프라는 참신한 매체에 담아 매주 발간하는 자료집인 만큼 민족의 지지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출판전형으로 인정될 것을 확신합니다.

≪6.15주간≫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7월 15일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김일성주석님 /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8월18일

나는 오늘 해외의 여러 지역에서 조국통일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조국을 방문하여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판문점에서 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대표 여러분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1990년대의 첫해에 열린 이번 범민족대회는 1948년에 있은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서 특기할 역사적인 회합이었습니다.

이번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방도와 공동의 투쟁대책을 토의한 것은 민족분단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열린 범민족대회는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망과 꺾을 수 없는 통일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범민족대회에 남측에서는 비록 한사람이 남측추진본부 대표로 참가하였지만 북과 해외에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여러 통일운동단체 대표들과 인사들이 수많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 가운데는 여성들도 한 200명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범민족대회에서 대표 여러분들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좋은 결의를 다지고 훌륭한 문건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대회를 전후하여 조직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다 훌륭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남측에서도 비록 대회에 대표들을 계획대로 보내지는 못하였지만 방송을 통하여 범민족대회소식을 듣고 대회의 정신에 적극 호응해 나섰습니다. 이것 역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범민족대회는 온 겨레의 통일염원과 기대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대회가 거둔 성과는 참으로 큽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범민족대회에서 일치하게 결의한대로 우리는 1990년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오늘 전체 조선민족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한 강토 위에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열되었으며 외세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열은 북과 남,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주의 시대이며 분열된 민족들은 모두 통일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민족이 계속 갈라져 살아야 할 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으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지금 북과 남, 해외동포들 속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의 ≪전대협≫대표 임수경학생이 사선을 뚫고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통일열망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온 세계에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임수경학생은 평양으로 올 때에는 분단의 장벽 때문에 멀리 에돌아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자기 조직의 결정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판문점을 거쳐 갔습니다. 그는 나어린 여학생이지만 참으로 장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애국적 소행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통일의 꽃이고 조선의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물론 어려운 투쟁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이 쉽사리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직 적지 않습니다.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세력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거기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4만여명의 미군을 항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있으며 남조선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와 남조선군대를 ≪한미연합군≫이라고 하는데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미국사람입니다. 자기 군대의 통수권을 남에게 빼앗긴 나라는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 ≪대통령≫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을 떼고 붙이고 하는 실권자도 역시 미국사람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사람들은 괴뢰정권의 ≪대통령≫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어버리든가 암살하고 다른 사람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틀어쥐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아시아와 세계 제패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해 전에 일본 정치이론잡지 ≪세카이≫편집국장과 한 담화에서도 말하였지만 미국사람들은 남조선을 좋은 비겟덩어리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물고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사람들이 남조선을 비겟덩어리처럼 물고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통일문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도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만만치 않은 세력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군사대국, 정치대국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000마일해상교통로방위≫론을 들고 나오면서 해군을 비롯한 ≪자위대≫의 무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1,000마일해상교통로방위≫란 일본으로부터 1,000마일까지에 이르는 서태평양의 넓은 해상과 공중을 일본이 방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싱가포르까지의 아시아, 태평양 영역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넣자는 것입니다. 일본은 또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키워주었지만 일본이 앞으로 군사대국으로 자라나면 ≪기른 개가 문다.≫는 격으로 미국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로 되려는 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조선의 통일이 방해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되면 강대한 나라로 될 것입니다. 북과 남이 경제를 통합하면 대단한 위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인구만 하여도 7,000만명이나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반동들은 조선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군사분계선을 ≪반공방파제≫라고 하면서 ≪반공방파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조선에서 미국이 손을 떼면 일본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이 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과 함께 일본에 대한 경각성도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전에 북남적십자회담을 할 때 우리가 남조선에서 온 대표들에게 혁명가극 ≪피바다≫를 보여준 일이 있는데 남조선에서 온 일부 사람들은 가극을 보고 나서 이미 지나간 역사를 다시 들출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만들어 공연한 연극을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지도하여 가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가극은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다는 역사의 진리와 일제의 침략과 학정에 굴복하지 않고 항거해나선 조선인민의 자주적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여 우리 인민들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던 그 수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제는 36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있으면서 ≪내선일체≫니, ≪동조동근≫이니 하면서 조선사람의 성까지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였으며 조선민족을 일본민족으로 동화시키려고 책동하였습니다. 이광수와 최남선 같은 사람들도 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은 ≪동조동근≫이라고 떠벌였습니다. 일본반동들이 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그에 대하여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민족내부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범민족대회가 열려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까지의 노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8·15를 계기로 판문점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소집하는데 대하여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인민들과 애국적 인사들은 열렬히 지지해 나섰으나 조국통일을 바라지 않는 분열주의자들은 대회를 파탄시키려고 여러모로 책동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범민족대회 소집날짜가 다가오자 지난 7월20일에 8월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기간으로 한다는 ≪특별발표≫를 하고 ≪방북신청자접수≫요, ≪명단교환≫이요 하면서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6만명의 ≪방북신청자≫를 접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명단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단 5일동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6만명의 사람들이 북에 왔다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방북신청자≫들을 북에 들여보낼 의사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은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북으로 올 것을 신청한 남측 대표들을 한사람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이미 초청한바 있고 ≪민족대교류≫기간에 평양을 방문할 의사를 밝힌 백기완선생의 북행길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의 ≪민족대교류≫안은 어떻게 하나 범민족대회를 파탄시키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내외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적지 않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신심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합니다.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입니다.

나는 1972년에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남측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되는 근본원칙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국통일은 첫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둘째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셋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남측대표는 우리가 내놓은 이 세가지 원칙을 그자리에서 찬성하고 접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후 남측과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합의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측 대표를 서울에 보냈습니다. 그때 남조선당국자는 우리측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당장 발표하는 문제는 좀 연구해보아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미국사람들과 협의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북과 남은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세가지 원칙을 정식으로 합의하였으며 7월4일에는 드디어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세상에 발표하였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남조선에서 여러명의 대표가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그들과 만나 담화하면서 북과 남이 대결할 것이 아니라 단결하고 합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남조선에서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야지 일본에서 수지기와를 들여다 초가집지붕이나 바꾸어잇는다고 하여 ≪새마을운동≫이 될 수 없다, 농민들을 잘 살게 하려면 관개공사를 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관개건설을 한 경험이 많은 것만큼 우리가 기술과 자재를 대고 당신들은 노력을 내여 남조선에서 관개공사를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물고기잡이에서도 합작하자, 신포 앞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합쳐지는 곳이므로 물고기가 많다, 남조선어민들이 북반부의 어장에 와서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광산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공화국북반부에는 지하자원이 많다, 당신들이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쇳돌을 사오느라고 하지 말고 북반부에 와서 쇳돌을 캐가라고 하였습니다. 북과 남이 합작할데 대한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은 모두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보고하면 ≪대통령≫도 좋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조선에 돌아가서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하여 남조선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느니, 남조선사람들을 데려다 ≪적화≫하려 한다느니 하면서 허튼소리를 하였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염원과 의사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강령입니다.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조선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조국을 통일하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종교인이건 가리지 말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은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통일운동의 지침으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남의 본을 따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무슨 일에서나 남의 식을 그대로 본따서는 일이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영도해오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체를 세우고 모든 일을 우리 식대로 하였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해방후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제일 걸린 문제는 민족기술간부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조선사람들은 기술을 배우려고 하여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북조선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으며 일본사람들은 조선사람들에게 기술을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기관차 같은 것도 운전은 일본사람이 하고 조선사람은 화부노릇이나 하게 하였습니다. 일제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기술대학을 나온 사람이 겨우 10여명밖에 안되었으며 기관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몇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인텔리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물론 우리 혁명의 기본동력은 노동계급과 농민입니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농민들만 가지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텔리는 노동자, 농민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을 창건하면서 노동자, 농민과 함께 인텔리를 우리 혁명의 동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당 마크에는 마치와 낫과 붓이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를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텔리를 혁명의 동력으로 내세우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 식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인텔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여러곳에 흩어져있는 인텔리들을 다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남조선에서도 적지 않은 인텔리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지만 **김일성**장군은 나라를 해방하고 자주적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다 **김일성**장군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남조선에서 학자들 뿐 아니라 예술인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찾아온 인텔리들을 밑천으로 하여 평양에 전문학교도 세우고 종합대학도 창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철도운수부문에서 김회일운동을 벌여 철도수송을 발전시키면서 기관사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영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우리 자신이 키워낸 근 150만의 인텔리대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워낸 인텔리들은 지금 40대, 50대, 60대의 일군들로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마력을 내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텔리대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0만의 인텔리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재부이며 커다란 자랑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인텔리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간 우리 당의 정책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도 우리 식으로 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도 우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한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은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우리 일군들에게 다른 나라의 경험도 배워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이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남의 것은 씹어보고 구미에 맞으면 삼키고 맞지 않으면 뱉아버려야 한다고 말하여줍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러한 자주적인 혁명정신으로 교양되였기 때문에 무슨 일에서나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것을 덮어놓고 본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일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결하는 길은 바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전민련≫과 ≪전대협≫을 비롯한 진보적인 단체들과 광범한 인민들이 자주, 민주, 조국통일의 구호를 들고 투쟁하고 있는데 이 구호가 매우 정당합니다. 자주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남조선사회를 자주화하자는 것이며 민주는 군사파쇼독재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자는 것이며 조국통일은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북과 남은 서로 먹거나 먹히울 수도 없으며 또 한민족끼리 서로 먹기 위한 동족상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북과 남이 연합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을 남조선인민들도 지지하고 해외동포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남조선의 민주인사 문익환목사가 평양에 왔을 때 그와 담화하면서 우리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금 북에는 사회주의제도가 존재하고 남에는 자본주의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공존의 원칙에서 그대로 두며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지역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수반은 대통령이나 주석이라고 해도 좋고 의장이라고 해도 좋은데 북과 남이 각각 1년씩 윤번제로 할 수 있다, 연방국가는 다른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중립국가로 되어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익환목사는 나의 말을 듣고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이 아주 훌륭한 통일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문익환목사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서로 견해가 일치하였으므로 담화를 오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문익환목사가 돌아갈 때 그의 숙소에 찾아가서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당신을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나가도 일없겠는가고 하였더니 그는 아마 몇달동안 감옥에 들어가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문익환목사가 남조선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를 비행장에서 체포하여 구금하였으며 그에게 7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습니다. 70고령의 늙은이에게 7년간의 징역형을 들씌운 것은 결국 감옥에서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익환목사에게 그처럼 가혹한 형벌을 들씌운 것을 보면 남조선당국자들이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다른 쪽에 강요하여서는 북과 남을 통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조선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한다면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서부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려고 한다면 남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들이 우리를 반대할 것이며 또 한 남조선에 있는 민족자본가들도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연방제형식의 통일국가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소련, 중국, 일본과 같은 큰 나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나라이고 일본은 자본주의나라입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연방국가는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이나 중국의 위성국으로 되어도 안되며 자본주의국가인 일본이나 미국의 위성국으로 되어도 안됩니다. 연방국가는 중립국가로 되어 자주적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연방국가가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수상이었던 크라이스키가 몇해 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나에게 통일된 조선이 중립국가로 되는데 대하여 자기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중립국가로 만들던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중립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헐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레이건이 미국대통령으로 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이 통일되어 중립국가로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연한 정책을 쓸줄 아는 사람이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중립국가를 만들 작정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된 다음 중립국가로 되는데 대하여 소련과 중국은 찬성할 것입니다. 일본도 속으로는 어떻든 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잘하면 미국도 찬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재미동포들이 돌아가서 미국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조선을 절대로 공산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남조선에 투자한 미국자본을 다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방국가를 창립하여 중립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인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제도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어느 일방의 제도를 타방에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제도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세워놓은 사회주의제도를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도통일론≫은 본질에 있어서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여 ≪두개 조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을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개 조선≫을 조작

하려는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허용한다면 민족의 분열을 고정화하게 되고 남조선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내맡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역사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숙망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 위업이며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개별적 계급이나 계층의 요구와 이익보다는 응당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위에 놓아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고 주장하여왔습니다. 해방직후 우리와 사상과 정견을 달리하는 수많은 남조선인사들이 우리의 호소에 호응하여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잘 싸웠습니다. 여운형선생은 우리와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적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여운형선생은 여러 번 우리를 찾아왔는데 한번은 자기의 아들딸들을 장군님께 보내겠으니 잘 키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운형선생과의 의리를 지켜 그의 아들딸들을 맡아 키워주었으며 두 딸은 외국에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도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워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하였습니다. 나는 해방직후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한 연설을 우리 일군들이 비에 새겨 개선문옆에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는 것이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과 단결하려고 합니다.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자본가들과도 단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이익을 배반한 친미파와 친일파들 그리고 외세와 결탁하여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매판자본가들을 반대하지 민족자본가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가한 대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족대단결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모두다 조선의 참된 애국자, 조국통일의 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이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면 조국에 대하여 잘 알고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는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보니 우리 말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비록 말은 몰라도 조선사람의 넋은 잃지 말아야 하며 조국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인민들은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영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간고분투하여 우리 식의 사회주의사회를 훌륭히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 살 걱정을 모르고 빈부의 차이가 없이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꽃피우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8월15일에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을 보고 그 공연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라고 하였습니다. 공연에 출연한 유치원어린이들은 다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인데 그들의 예술적 기량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서부독일 여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공연을 함께 보면서 그에게도 말하였지만 어린이들의 예술적 재능이 이처럼 활짝 꽃펴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많은 부자집 아이들은 예술을 배우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돈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예술을 배우려고 하여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져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에 출연한 네쌍동이 어린이들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국가에서는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 2층짜리 독집을 지어주고 담당교양원과 담당의사를 붙여 돌보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식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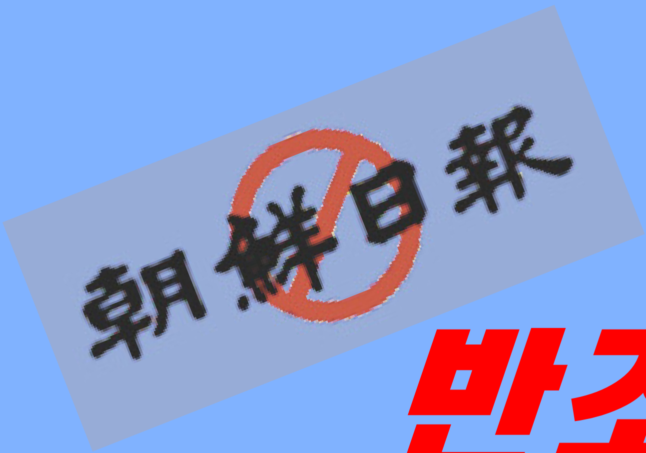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그 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많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며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호화롭게 살지만 반면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고 집이 없어 거리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살인과 강도,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에이즈병이 제일 많이 퍼져있는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이 자리에 미국에서 온 동포들도 있는데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본따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최근에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예견치 않았던 사태들이 일어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더욱더 거만하고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헌병노릇을 하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자유화바람이 불고 동란이 일어날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든든합니다. 우리 나라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어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한데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지켜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고 믿습니다.



반조선일보

조선일보 거부 전국확산 운동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시민연대)는 10일 ≪조선일보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주인 방씨 일가가 세금도둑임이 밝혀졌는데도 언론탄압이라는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대변화를 위해 전국적인 구독거부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전국 5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홍근수 상임공동대표 등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수송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의 세부 방침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택시노련과 보건의료노조 등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구독거부≫ 스티커 수만부를 제작해 나눠주고,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조선일보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대구와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연대는 자체 인터넷홈페이지(www.antichosun.or.kr)에 구독거부 상황실을 설치해 참여 단체들이 전해오는 전국 각지의 구독거부 현황을 집계해 수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또 조선일보의 친일행적을 심판할 ≪민간법정≫을 오는 11월께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은 언론개혁의 실천방안인 동시에 신문의 주인이 곧 독자라는 주권선언이기도 하다≫며 ≪조선일보가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과 민족앞에 사죄할 때까지 구독거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한겨레 7/10/2001

성명서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을 선언하며

우리 사회의 온전한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대세를 지키는 지킴이로서, 지난해 9월 정식으로 출범했던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오늘 이 시각부터 ≪조선일보 구독거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조선일보가 우리 민족사에 저질렀던 죄악을 스스로 참회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한 뒤에 참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수차 촉구한 바 있다.

3차에 걸쳐 800여명이 참여했던 ≪조선일보 거부 지식인 선언≫이 그러했고, 시민들과 사회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조선일보 반대 1인 시위≫, ≪국토종단≫,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전시회≫, ≪국사교과서 개정 서명운동≫ 등이 전개되었으며,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모임이 각 지역과 대학별로 속속 결성되면서 조선일보의 각성과 언론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로지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의 고비마다 발목을 잡고 또 민족화해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과 군사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데 골몰해왔을 뿐이다. 또한 정당한 노동운동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교육현실을 왜곡하는데도 앞장서왔다. 그에 따라 조선일보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자 불안을 느낀 나머지 구태의연하게 음모론을 흘리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니, 정권의 홍위병이니 하는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말았다.

조선일보의 기만술은 최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층 극에 달하고 있다. 그들의 사주 방씨 일가가 희대의 세금도둑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도 언론탄압이라는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치 권력의 희생양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일방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자라면 정직과 양심을 생명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기자들은 일개 사주의 마름으로 전락하여 파렴치한 범법자를 옹호하고, 언론개혁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철저히 외면한 채,

억측과 왜곡기사로 연일 지면을 도배질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족벌사주인 방씨 일가와 바로 그들을 위해서라면 정권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일부 조선일보 종사자들의 오만이요, 이들의 작태는 가히 ≪밤의 대통령≫, ≪신문권력≫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케 한다.

이에 우리는 조선일보의 대변화를 위하여 방상훈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구독거부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 독자들은 신문구독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5공화국의 언론말살 정책으로 족벌언론들에 의한 독과점 체제가 굳어졌고, 정권의 나팔수에 지나지 않았던 신문들은 보도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같은 족벌언론사의 무차별적인 경품제공과 무가지 살포에 선택권이 좌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독자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신문, 거짓말과 왜곡을 일삼는 신문, 시대가 요청하는 변화의 소명을 외면하는 신문, 냉전과 독재자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리는 신문, 곧 조선일보는 국민들로부터 마땅히 거부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완성과 민족의 평화적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노정에서 언론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참으로 도도한 역사적 흐름이다. 정녕 언론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통일도 멀고먼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언론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오, 구체적이고 분명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언론개혁의 실천방안으로 삼았으며, 이는 신문의 주인이 곧 독자라는 주권선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의 실상과 해악을 온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신문에 대한 선택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과거를 진실로 반성하고 국민과 민족 앞에 사죄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연대단체, 그리고 시민 학생들과 더불어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실제적이고 공개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01년 7월 10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국제민주연대, 대구희망의시민포럼, 인터넷 웹진 ≪대자보≫,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개혁시민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회운동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4월혁명회,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안티조선 ≪우리모두≫, 언론정보학회, 5·18 광주민중항쟁서울·경기동지회, 울산민주시민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물과 사상 독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대기련,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전영기련, 전북민언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4·3연구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언론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규명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반민특위, 한총련 학부모회 (이상 59개 단체)

오늘 ≪밤의 대통령≫ 시대는 막을 내리는가

18개 시민사회단체 동참, 언론개혁6월 선언 선포

국세청이 29일(금) 조선, 동아, 국민 일보 사주와 법인 그리고 대한매일, 중앙, 한국일보 법인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같은 시간 서울 한국언론회관 앞에서는 신문개혁 국민행동, 언론노조가 주최하고 현직언론인, 노동, 여성, 종교, 환경, 문화예술, 학생, 법조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언론개혁 6월 선언≫이 진행됐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각계각층 18개 부문에서 언론개혁 선언운동에 5천 528명이 동참했다고 밝히며, ≪14년전 오늘 6.29선언을 만들어 냈던 6월항쟁의 정신에 따라 언론개혁을 범국민적 행동으로 만들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는 신문개혁 국민행동 본부 성유보 위원장이 언론개혁 6월 선언문을 낭독한 것에 뒤이어 종교계, 법조계, 노동계등 1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부문별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성유보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현역 언론인들이 언론개혁 6월 선언에 대거 참여한 것은 언론개혁 운동의 성공을 예감하게 한다≫며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공정거래위 조사의 투명하고 적법한 처리만이 언론탄압 음모론을 불식시킬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각 단체별 선언문에서 한 목소리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공개 및 처벌, 정기간행물법개정, 정부



≪부문별 선언문≫



개신교 : 언론사가 공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사유화되어 지난 6월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비쳐짐으로 온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가져다주었다. 우리는 언론사가 하루 속히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어냐 하는 책임성 등 개혁과제를 잘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증진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란다.

천주교 : 모든 언론사들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반했던 역사적 과오와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탈법과 비리들을 자진 공개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다시는 공익에 앞서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 관계를 내세우지 말 것이며 사회의 공기로서 우리 사회의 진실된 모습과 참 여론의 전달을 사명으로 할 것과 모든 언론 행위에 대한 편집권의 독립과 편집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여성 : 언론사의 불투명경영과 혼탁한 신문시장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었다. 지난 6월 21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보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공기인 언론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 부동산 위장전입,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등의 비리가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97년부터 계열사 광고 자사무료 게재, 기업어음 저리매입, 진성어음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언론이 비판하던 악덕재벌의 부정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언론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인권과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위해 언론이 개혁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환경 : 우리 환경운동단체들은 시민 · 사회 · 노동 · 종교단체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언론, 공정하고 약자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반영되는 언론, 권력과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참언론의 실현을 위해 언론개혁운동을 힘껏 펼쳐 나갈 것이다.

학계 : 언론은 이제 구조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개혁되어야 한다. 우선 현장을 경험하는 언론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집권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편집권의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는 물론 내부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론사의 소유구조도 족벌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나 소유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다양한 언론이 존재할 수 있도록 자본력에 좌우되지 않는 건전한 언론 시장의 형성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 정부 여당은 ≪언론개혁≫이라는 전 사회적 열망과 민족사적 과제를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세무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탈법과 비리로 얼룩진 언론을 단죄하는데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세무조사가 일부 수구세력의 주장대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로 치부되어 그 빛이 바랠 것이다. 빛바랜 언론개혁의 의지는 결국 국민적 저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어둡고 혼란한 정권말기 증후군으로 목을 죄어올 것이다. 이 자명한 수순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조차 어리석을 뿐이다.

정부여당은 또한, 국회 내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서두르는 등 언론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이러한 온 국민적 열망을 등에 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다시 한번 언론개혁을 힘주어 주장한다. ≪공정하고 공익적인 언론구조 창출을 위한 언 · 론 · 개 · 혁≫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노동 :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때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을 외치는 모습에서는 육군인 경찰병력 보다 먼저 파업을 폭격하는 자본의 폭격기가 바로 언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가뭄이라 안되고, 고임금 파업이라 안되고, 시민불편 주니 안되고, 외국인 투자 내쫓고 경제에 주름살 주니 안되고, 불법이라 안되고 … 오직 파업은 안 된다는 이야기일 뿐,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파업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기본권리라는 소박한 진리조차 묻어 버렸다.

언론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노동정책을 포함해 그 무엇을 바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소박한 진리를 뼈저리게 확인했던 2001년 6월이었다. 이제 노동자들도 언론개혁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 이 가뭄에 웬 연대파업 이냐 더니 이 가뭄에 세금도둑질을 수천 억씩 해먹고 있는 언론, 족벌 재벌 손아귀에서 자본의 폭격기가 돼 버린 언론을 바로 세우는 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힘쓰겠다. 이미 시작한 조선일보 거부 운동부터 비상한 각오로 끈질기게 실제 힘이 되도록 애쓰겠다.

농민 : 민중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과 야합하여 자기들만의 세계를 탄탄히 구축해 왔던 언론재벌, 재벌언론, 족벌언론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참뜻을 받아 안고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언론, 공정한 언론, 공익을 위한 언론, 깨끗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빈민 : 우리 도시빈민은 언론족벌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개혁은 이제 그 당위성을 넘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개혁이 우선 시 되어 고통받고 탄압 받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낼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도시빈민은 이 사회의 민주언론을 쟁취하기 위하여 힘써 싸워나갈 것이다

통일 : 이 땅 언론이 오늘의 추한 몰골에 이른 까닭은 언론 재벌, 재벌 언론의 탐욕에 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 입을 이용하여 분단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반통일, 반민주 세력의 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언론 개혁은 언론의 거짓과 부패를 차단하는 일이면서 동

시에 언론을 향한 반통일, 반민주 세력의 지배, 개입 구조를 청산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사들 스스로 자기들의 범죄를 공개하고 참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 당국의 세무조사가 처음에서 끝까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촉구한다. 지나온 과오를 모두 씻어 내고, 진정한 언론의 모습을 회복하는 언론, 민주주의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언론을 온 국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학생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수구보수언론이 탈세와 불공정거래 언론의 1순위를 앞다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탈세조사는 거대자본이자 권력화된 수구보수언론이 영위한 부정과 비리의 파렴치한 생존방식을 공개 처벌하는 일이자 사대매국 반통일 세력의 나팔수로 민중의 역사를 도둑질한 중죄를 처벌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칼보다 강한 펜의 위력을 가진 자들에게 고스란히 받치고 그들 스스로 민족과 민중위에 군림해온 역사의 이단아들을 심판하는데 손을 잡았다. 언론개혁 없이 더 이상의 사회발전은 없다. 그들의 곡필 속에 고통받고 죽어간 민중의 목소리, 자주민주통일의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언론개혁의 맨 앞장에 설 것을 4천만 민중 앞에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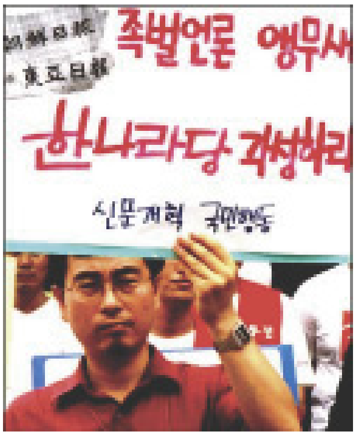
교육 : 언론은 ≪이익≫을 앞세우는 좁은 시야를 버리고, ≪옳고 그름≫의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천명합니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이익≫에 집착하여 혼란스러워진 ≪말의 질서≫를 언론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미래를 여는 전망을 올바른 ≪말의 질서≫에 터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적 부익부 빈익빈을 넘어서기 위해,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교육평등권을 지키는 역할을 언론이 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바로 세워짐을 선언합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 부산본부외 참가지역 :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신문시장의 독과점, 여론독과점, 언론사의 족벌세습 체제, 편집권 예속, 지나친 상업주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야 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언론개혁을 위한 총체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또한 편집권의 독립과 언론시장의 독과점을 타파하기 위해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언론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법조계 : 우리 법조인들은, 일부 언론사들이 강변하는 언론의 자유가 실은 초법적인 언론사 소유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함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언론개혁운동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일부 언론의 횡포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이다. 극단적으로 이익집단화한 일부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일부 언론과 그 사주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가 더 이상 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일부 언론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근절하고, 그럼으로써 참다운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기 위한 언론개혁운동에 법조인들도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바른지역언론연대 : 왜곡된 언론현실을 만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집단은 거듭 반성하라.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정간법을 비롯한 언론개혁법(가칭)을 제 · 개정하라. 이제 자유언론말살의 공범인 재벌언론과 언론재벌의 언론독점과 횡포는 역사의 무대 뒤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우리 바른지역언론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각종 언론관련법과 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기득권 언론에 독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바른 언론을 개척하고 있는 지역언론에도 동등하게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 : 스스로 ≪밤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선거 때면 ≪대통령 만들기≫를 꾀할 정도로 거대해진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여론을 왜곡시키며, 부당한 권력행사를 즐기는 족벌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사회적 흉기≫이다. 이처럼 ≪사회적 흉기≫가 된 족벌언론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며, 부당한 사적 이익 챙기기를 하는 것을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다.

동아언론자유투쟁위원회 : 1987년 6월 항쟁 뒤 시민적 자유가 확대되면서 언론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시민의 저항과 항쟁에 의해 시민적 자유, 언론의 자유도 확대됐다. 그것은 언론인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치열한 항쟁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다. 이 넓어진 언론자유의 공간에서, 군부 독재정권에 야합하고 굴종했던 수구 족벌신문들은 권언유착으로 축적한 거대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거대한 권력집단이 되었고, 언론사주들은 언론황제가 되었으며, 밤의 대통령이 되었다. 바로 그들이 이제는 언론자유를 농락하고 짓밟고 있으며, 사회적 공기라는 언론을 사유화한 세력들이다.

우리는 이들 언어폭력의 집단, 언론을 사유화한 언론황제들, 정치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만을 떠는 밤의 황제 무리들을 언론의 현장에서 청산하고, 그 자리에 민족, 민주, 민중을 위한 참 언론이 설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적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우리도 그 거룩한 싸움에 한 부분이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이다.

현직언론인 :우리는 비록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한없이 빠져드는 현실일지라도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울 책임과 의무 또한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다. 누를 길 없는 자괴감을 밑거름 삼고 독재권력에 맞선 수십 년의 언론민주화 투쟁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국민 속에 존재하는 참언론의 새벽을 여는 횃불을 높이 치켜든다.

박정미 기자 josuna@unews.co.kr
[출처: 유뉴스 2001-06-29 www.unews.co.kr]

언론개혁 본연의 의미를 호도하지 말 것

국민행동, 한나라당사앞 시위

≪신문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1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정쟁중단촉구 및 비리사주 비호 규탄대회≫를 가졌다.

≪국민행동≫은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두고, ≪일부 언론은 아전인수격으로 사실을 호도해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자숙하면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과 ≪정치권은 더 이상 현 상황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주장했다.

(엄성식 기자 newday@unews.co.kr)
[출처:유뉴스 2001-07-11 www.unews.co.kr]

6.15공동선언실현

통일연대, 6.15공동선언 거리홍보 나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가 4일 오후 7.4공동성명 발표 29주년을 맞아 종로 탑골공원 앞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6.15공동선언의 실천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원하는 홍보전을 펼쳤다.

7.4공동성명 발표 29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7.4공동성명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남북의 공통된 염원속에 탄생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고 강조한 뒤 7.4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오종렬 공동대표는 ≪7.4공동성명은 미국과 반통일세력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었지만 6.15공동선언은 온 국민이 일심단결하여 자주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정치연설에서 장기수송환대책위원회 권오헌 위원장은 ≪7.4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한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한정부가 국제공조를 깨고 남북공조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권오헌 위원장은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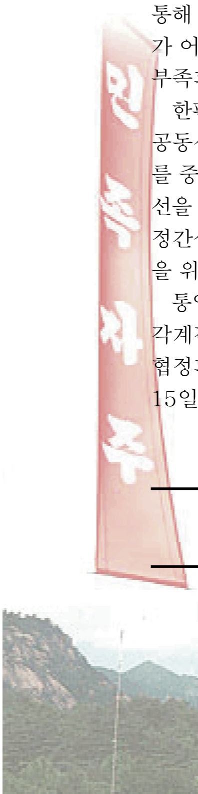
기념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홍보지를 각각 손에 들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 6.15공동선언의 내용과 의의를 알리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를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통일연대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길민찬(31, 회사원)씨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대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이다≫며 ≪만일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북한의 단절로 인해 예전과 같은 냉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김희범(경희대, 1학년)군은 ≪사실 별 관심이 없지만 군대문제를 생각하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대답하고 백상현(숭실대, 1학년)군은 ≪각종 여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정보를 듣고는 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아직 정리된 내 생각이 없다≫고 말해 통일에 대한 관심부족과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리 홍보전이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지난 15일에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으로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중심으로 한 VTR상영과 사진전이 열렸으며 한반도기가 찍힌 풍선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미국의 내정간섭 MD구축 저지를 위한 범국민선언운동(범국민선언운동)≫을 위해 서명을 받고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통일연대는 오늘을 시작으로 범국민선언운동과 단일기 달기 등을 각계각층으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며 7월 28일에는 ≪7.27 정전협정과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문화공연≫과 국토순례대행진, 8월 15일에는 ≪통일대축전≫을 벌일 계획이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7-05

조국은 하나다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5만 청년 · 학생 통일선언

오늘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깃발아래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통일의 새세기를 열어제치는 대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제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이정표를 따라 분열을 넘어 화해로, 단절을 넘어 대단결로 그리하여 마침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래 있었던 지난 1년간의 통일대행진을, 분단 반세기를 뛰어 넘어 이산가족이 만나고, 비전향 장기수가 인내의 세월을 이기고 송환되는 모습을, 그리고 남과 북의 노동자와 농민이 하나되고 종교인과 각계각층이 만나 뜨겁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돌이켜 보라!

이제 우리 민족 앞에 자주와 통일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통일의 새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 애국의 열정에 피끓는 우리 청년 · 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의 선두에 서서 조국의 자주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6.15공동선언 깃발 아래 온 겨레가 잡은 손 굳게 잡고 조국통일 이룩하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선언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실천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를 가르는 기준이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에 소속과 차이를 뛰어넘어 온 겨레가 하나되어 조국통일 이룩하자.

하나, 6.15공동선언의 근본 정신은 민족자주에 있다. 우리 청년 · 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개입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어렵게하는 근본적 이유임을 직시하며,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미국의 강경대북정책을 반대한다. 통일은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민족끼리 단결할 때 가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에 앞장 설 것이다.

하나,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에 모든 통일논의는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반통일 수구세력을 반대하는 것은 통일의 큰길을 넓히는 일이다. 우리는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범민련, 한총련의 이적규정철회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 청년 · 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어깨 걸고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올해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남북해외 청년 · 학생 평화통일대회(가)≫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6.15공동선언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길 것이다.

2001년 7월 20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 청년 · 학생 추진위원회

경실련청년회, 그림공장, 대전통일아리, 대한불교청년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새시대서울청년회, 세계평화청년연합, 수원통일사랑청년회, 우리나라, 원불교청년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대협동우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직장인모임 일터사랑, 청년정토회, 청년통일광장, 청춘, 청주통일청년회(준), 평화와통일을바라는 가톨릭청년학생연대,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의미래 제3의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KYC), 한청협전국동지회



남북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 추진 중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년학생추진위원회(청년학생추진위원회)≫와 북한의 청년학생들이 공동으로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학생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북한의 범민족연합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를 통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학생위원회, 범청학련 북측본부에게 남북 각각 1천명 규모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통일대회)≫를 7월 20일에 평양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북측 청년학생단체들은 통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7월초 금강산에서 실무협의회를 갖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고, 이왕이면 남측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북측의 농업근로자동맹위원회(농근맹)가 실무회의를 하는데 같은 시기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청년학생추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의지를 모으는 방안으로 5만인 청년학생 선언운동을 현재 진행중이다.

김종수 한국청년연합회(KYC)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은 이 선언운동에 대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기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 개인이 1천원의 선언기금을 모아 7월 20일 중앙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종수 사무국장은 8.15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엽서 쓰기, 통일뱃지 달기 등을 실천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년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 청년학생단체들과 실무협의를 위해 전농과 일정을 논의 중이며, 따라서 통일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한과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7-02

서울동부지역통일연대(준) 활동경과보고

- 5월 7일 ≪서울 동부지역 연대회의≫ 소속 단체 대표자 20여명이 모여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 동부지역 제 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실무를 담당할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함.

- 6월 8일 24개 단체에서 참가하여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 동부지역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진행함. 명칭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 동부지역 제 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가칭)≫로 하고 공동대표로는 동총련, 민주노총 동부지구 협의회, 중구노점상연합, 청년에서 각 1인씩하고, 강동 · 송파지역에서 2-3인, 성동 · 광진지역에서 4-5인, 동대문 · 중랑지역에서 1-2인 정도로 하고 본 조직 결성 때까지 열어두기로 함. 대표자회의는 참가단체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집행위원회는 동총련, 민주노총동부지구협의회, 금속노조 동부지회, 청년, 강동 · 송파, 성동 · 광진, 동대문 · 중랑, 민주노동당에서 각 1인씩 참가하기로 했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 내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정하기로 함.

- 6월 25일 18개 단체가 참가하여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동부지역 제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가칭)≫ 1차 대표자회의를 진행 함. 명칭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 동부지역 통일연대(준)≫으로 확정함. 조직구성은 공동준비위원장, 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공동준비위원장으로는 동총련의장, 최태하(민주노총동부지구협의회 의장), 이연구(전국노점상동대문지역연합 지역장), 성동 · 광진지역에서 윤여운(광진주민연대 대표), 김영철(성동광진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이해삼(동부지역 평화와 통일을 여는 모임 대표), 이중원(성동광진민주시민회 회장), 금오 · 행당에서 1인 그리고 강동 · 송파지역과 동대문 · 중랑지역, 민주노동당에서는 차후에 확정하기로 함. 대표자회의는 참가단체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집행위원회는 동총련, 민주노총동부지구협의회, 노점상연합, 금속노조 동부지회, 강동 · 송파, 성동 · 광진, 동대문 · 중랑, 민주노동당, 지역사회교육센터, 성동희망나눔, 동부지역 평화와 통일을 여는 모임, 동대문청년회, 동부지역일하는청년회, 통일시대애국청년회에서 각 1인씩 참가하기로 했고 집행위원장은 강동송파시민회 대표가 하기로 하였음..

참가단체 : 강동송파시민회, 성동광진민주시민회, 동대문청년회, 동부지역일하는청년회, 통일시대애국청년회, 전국노점상중구지역연합, 전국노점상송파지역연합, 전국노점상동대문지역연합, 전국노점상광진성동지역연합, 민주노총동부지구협의회, 금속노조 동부지회, 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 전대기련 동부지부, 광진주민연대, 성동희망나눔, 동부지역 평화와 통일을 여는 모임, 지역사회교육센터, 동부밑거름 학교, 시민미술단체 늦바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동송파지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성동지부, 동부노동자 생활학교, 새힘독서회, 민주노동당 성동광진지부, 민주노동당 동대문중랑지부, 민주노동당 강동송파지부, 광진구택견연합회, 전교조 동부지회, 청년건대, 동부지역 학생인권복지연합,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총 31개 단체(7월 4일 현재)

참관단체 : 위례시민연대 / 총 1개 단체(7월 4일 현재)

서울동부지역통일연대 2001-07-04



서울서부지역 통일연대 결성보고

남북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한 역사적인 7월 4일, 서울서부지역 통일연대는 결성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제 2인문관 강의실에서 힘있고 결의높게 진행된 결성식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동안 서울의 서부지역(서대문, 마포, 은평, 강서, 양천지역)에서 공동선언 실천을 결의하고, 지역통일운동을 우득종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지역장님을 구심으로 세워내는 웅립의 자리였습니다.

서울지역통일연대(준) 공동대표 김규철 선생님, 민자통의 우동철, 소기수 선생님께서 함께 하였으며 김규철 공동대표님께서 연대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 막 출소한 서부총련 의장의 청년학생이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의 선봉이 되자! 라는 씩씩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서부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서부청년회 준비위원장님의 사업계획발제와 결의를, 이어 서부통일연대 상임대표 우득종 서부노련 지역장님의 결의발언과 결성선언문 낭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조직결성을 위한 진행된 간담회와 6.15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진행된 집중실천과정과 정세에 맞는 선언문채택등 기간 조직결성과 실천활동을 긍지높게 총화하면서 향후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동안 다양한 실천계획과 대중사업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서울서부지구총학생회연합,나라사랑청년회,서부청년회(준),서강청년동우회,명지청년동문회,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우리마당 이 9개단체에서 시작하여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의 의의에 맞게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의 결성선언문을 채

전국연합 자유게시판 2001-07-05

성남지역 청년들 통일열기 후끈!

성남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이하 성청련)에서는 ≪또하나의 조국! 북한을 바로알자≫라는 주제로 2기 민족학교를 진행중이다.

≪민족학교 강의일정≫
제1강 6/12(화) 기독교사상을 통해 바라본 북한사회/박순경(전 이화여대 교수)
제2강 6/19(화) 경의선 철도로 본 민족경제 전망/막심 볼코프(주한 러시아 대사관 서기관)
특강 6/26(화)북한 대중문화 체험 – 북한영화 상영(제목: 살아있는 영혼들)
제3강 6/29(화) 내가 만나본 북녘의 청년들/신준영 (민족21 편집장)
제4강 7/ 3(화) 북한의 친일잔재 청산과 민족정통성/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특강 7/ 6(금) 북한 식량문제의 현황과 전망/김순권 (경북대 교수)
제5강 7/10(화) 미국의 MD정책과 북한의 외교전략/정기열 (재미교포 목사)
통일기행 : 7/ 8(일) 통일전망대와 임진각 일대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이하늘기자 2001-06-20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계승하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민족통일대토론회 보고 성명서

남측의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북측의 〈6.15 - 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이하,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공동으로 성대히 치뤄내었다.

분단이후 당국자간의 만남이 아닌 민간단체간의 교류로는 최대규모의 행사였는지라 참가하고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 역시 무척이나 고조되었다. 멀게만 느껴지던 북녘 땅에 대표들이 다녀와 이북에 대한 생생한 느낌과 통일에 대한 신심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며 참으로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자주와 통일을 향한 겨레의 약속인 6.15남북공동선언, 그 민족의 거룩한 이정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자리이자, 자주 통일과 민족 번영을 향해 마련된 그 위대한 길을 더욱 넓히기 위해 서로의 가슴을 활짝 열어 하나의 뜻으로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1948년 김구 주석이 걸었던 길, 1988년 문익환 목사가 헤쳤던 길, 아니 지난 55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겨레 모두가 넘고 또 넘었던 그 길이 마침내 열렸다. 하지만 오늘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단 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을 비롯한 6명의 참가단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짓밟는 김대중정부의 옹졸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민족대단결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이 맞댄 가슴 더욱 뜨겁게, 남북이 맞잡은 손 더욱 굳건히 6.15남북 공동선언을 따라 겨레가 하나되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민족통일 대장정의 발자취를 아로새길《민족통일대토론회》의 성과를 이어 민족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바다.

2001년 6월 26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북통일연대



2001년 제주지역통일축전 추진본부 결성식

제주지역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제주지역 통일축전 추진본부(건)≫ 이 9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7.8월 통일투쟁을 힘차게 펼칠데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대표자회의 속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시켰고 현재 조직되어진 단체외에 시민단체들을 더 포괄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가단체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제총협,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주민자치연대, 청년준비위(통일청년, 억새왓, 대정나라사랑청년회), 섬하나산하나, 소리왓, 신나락

– 참관단체

4.3도민연대, 4.3유족회, 4.3연구소

전국연합 자유게시판 2001-07-04

농민통일대회참가단 속초출발

≪속보1≫ ≪남북농민통일대회≫ 참가단 속초항으로 출발

≪속보1-10시 20분≫

18~19일 금강산에서 남측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과 북측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이 공동주최하는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남측 농민 참가단이 각지를 떠나 속초항으로 집결하고 있다.

분단사상 최대규모의 행사임에도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은 소박한 모습속에서 참가단은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등 재야인사들의 따뜻한 인사속에 광화문을 출발했다.

정광훈 전농 의장은 소감을 묻자 ≪배 타야 떠나는 것이지≫라며 특유의 소탈함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이번 행사는 범민련이나 한총련, 문익환 목사 등 특정인 중심의 통일행사가 아니고 대중적인 행사다. 특히 우리 전농 회원들이 만들어낸 최대규모의 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07시 15분 현재 참가단은 농민 628명, 문예단 11명, 기자단 17명,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인사 18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8명 등 총 682명으로 집계됐다.

속초항 도착시간은 12시 30분이다.

≪속보2≫ ≪남북농민통일대회≫ 참가단에도 방북불허자 1명 있어

≪속보2-10시 30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농민통일대회≫ 남측 참가단 688명 중에서 1명이 방북불허된 것으로 10시 11분 현재 밝혀졌다.

방북불허자는 전농 강원도연맹 총무부장 김덕수씨로, 불허 이유는 국보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덕수씨는 이미 작년에 사면된 사안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전농 지도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방북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과 다른 이유로 규제를 받는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동행방북 의사를 밝히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전농 남미영 교육부장은 관계당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당장 사면 통지서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관계당국에서 사실확인을 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강력 항의를 했다.

≪속보3≫ 방북불허자, ≪나로 인해 전체 행사가 차질 빚게 될 것을 원치 않아≫

≪속보3-13시 20분≫

방북불허된 전농 강원도연맹 총무부장 김덕수씨 문제를 놓고 전농과 관계당국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통일부 교류2과 담당자는 ≪집행유예 상태인 것 외에 다 말해줄 수 없는 사유로 불허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전농 지도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전체 행사가 차질을 빚을 우려에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

한편 방북불허된 당사자인 김덕수씨는 ≪나는 실무자에 불과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행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전농 지도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번 ≪남북노동자5.1절통일대회≫나 ≪6.15민족통일대토론회≫ 때의 방북불허자 문제와 관련한 규탄대회와 같은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흥 기자(ih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7-17



기아노조, 작업장에 단일기 걸어 통일기원

전국금속산업연맹 기아노동조합(기아노조)이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동당과 자통협, 전국연합, 범민련 주최로 열린 ≪제12차 반미집회≫에 30여명이 참가한 기아노조는 그동안 반미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며, 노조 차원에서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의 나용곤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에 화성지부의 대의원이나 활동가 중심으로 조금씩 결합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노조차원에서 조합원과 함께 결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나용곤 부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들의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홍보활동을 진행했으며 이 결과 조합원의 반미의식은 올해 통일행사에 잘 표현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기아노조는 통일운동기간(6.15~8.15) 동안 각 지부별로 단일기를 걸기로 결의했으며 6월 15일 작업장에 단일기를 내다 걸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임금인상협상과 단체협약갱신투쟁에서 매향리폭격장폐쇄투쟁을 조합원 전원이 참가하여 결의할 계획이며, 지역 ≪6.15공동선언 실현과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연대≪와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라고 나용곤 부위원장은 밝혔다.

나용곤 부위원장은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은 매우 협소한 시각이며 통일운동은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학생 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하며 그때 비로소 통일도 되고 의미도 있다≫고 각계각층의 통일운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규엽 통일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역대 대통령은 미국에게 우리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노였다≫며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사람이 애국자요,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늘 오후 매향리에서 열리는 문화제에 전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6-30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구국의 소리 7월 9일 - 10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1년간 남과 북의 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하는 등 조국통일운동에서 많은 긍정적 발전이 있어서 겨레를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세에 역행해서 한편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 또한 악랄하게, 끈질기게 자행되고 있어서 통일의 앞길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통일세력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윤정원씨 모시고 애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이정표를 따라 온 겨레는 자주통일대행진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민족자주통일대행진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길에서 매우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면 그것을 가로막아 나서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민족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어떤 것들인지 그와 관련해서 애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윤정원 :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장애가 뭔가 하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되는 장애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이라고 말할수 있죠. 아시다시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봐도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죠.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외세때문이고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다름아닌 외세의 지배와 간섭때문입니다.
사회자 : 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인 외세란 구체적으로 미국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분열의 원흉이고 민족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제2차대전후 세계제패야망에 들뜬 미국은 한반도를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서둘러 3.8도선 이남지역을 군사적으로 강점했어요. 미국의 부당한 한국강점과 식민지통치로 인해서 8.15광복후 전국적 판도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이 실현되지 못하게 됐고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양분되고 민족분열의 수난과 비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대한식민지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장애로 되고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 실례가 없어도 잘 아시라고 봅니다. 미국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 반북대결전쟁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남북사이의 군사정치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켜왔어요.
사회자 : 미국의 반북대결전쟁정책과 반통일책동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로 높아가던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몰아갔습니다. 지난날 미국에 의해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해왔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됐음은 내외의 주지의 사실이죠. 특히 올해초에 집권한 부시미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대행진을 가로막기 위해 날뛰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집권첫날부터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을 떠들면서 힘에 의한 대북강경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날로 그 도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계개선방향으로 나가던 조미관계가 일시에 냉각, 역전됐구요, 한반도에는 또다시 대결과 긴장격화와의 신냉전기류가 흐르고 새전쟁의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무분별한 반북강경압살정책과 새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해서 모처럼 마련되었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파괴되고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는 또다시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시는 대북정책에서 변화라도 있는 것처럼 북미협상제안을 발표했는데 협상을 통해 이북을 무장해제시켜 압살하려는 목적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적이며 독재적인 대북협상제안에 경각심을 높이고 반미투쟁의 열풍을 더욱 높여서 민족자주통일의 기본장애인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사회자 :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외세는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반동들도 속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죠. 일본의 역대 반동들은 물론 현지배층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새전쟁도발책동에 합세해서 한반도에 대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일본반동들은 일제의 과거죄행을 백지화하고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려는 범죄적인 기도밑에 역사왜곡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고 미국의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적극 가담해 나서는가 하면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열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띠고 있는 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반북적대시정책과 한반도재침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일본반동들을 반대해 투쟁하는 건 민족자주통일의 장애를 제거하는 일환으로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사회자 :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건 외세만이 아니라 민족내부에 있는 사대매국적인 극우반통일세력들도 있는데요. 이 땅의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들도 하루빨리 제거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네, 앞에서도 애기 됐습니다다만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을 걸고들면서 반북강경고립압살책동을 날로 노골화하고 제반 **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과 군부호전분자들은 미국과의 이른바 연합방위태세확립이요, 굳건한 동맹관계요, 한미일 공조요 뭐요하면서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적극 가담해 나서고 있어요.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조국을 통일할걸 공포한 민족자주평화통일선언인 6.15남북공동선언정신을 난폭하게 유린위반하고 동족인 이북을 반대하는 이런 배신자, 반통일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민족자주를 부정하고 외세와 야합해 동족인 이북을 압살하려는 반민족반통일세력에 의해 조국통일의 길에 장애가 겹쌓이고 우리 민족이 당하는 민족적 치욕과 불행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고보면 한미일공조를 운운하고 미군의 장기주둔을 애걸하면서 반북대결에 미쳐 날뛰는 자들은 예외없이 민족자주통일에 장애를 조성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배신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정부와 정당은 물론 정치인들이나 군부와 사법경찰계, 언론계 등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줌도 못되는 세력이지만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회창과 그의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그런 배신자, 범죄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죠. 맞아요.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악랄하게 헐뜯고 그 이행을 각방으로 방해하는 배신자, 반통일분자들의 전형이라 할 수가 있죠. 현시기 6.15공동선언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고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결하는 척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을 위시한 한나라당의 우익보수분자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있게 된다는 것을 공포한 지난해 4.8합의서가 발표되자 선거용 전략이라느니, 북에 가봐야 얻을것이 없다느니 하면서 시비를 했고,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실현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것을 북의 전략에 동조한 것이고 이른바 평화와 완화의 핵심요건이 빠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악의에 차 비방중상했어요. 그리고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적극적인 지지환영속에서 공동선언이 착실히 이행되자 그것이 상호주의원칙에 위배되고 일방적인 퍼주기식이라는 등 악담을 늘어놨어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압살정책에 따라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침체상태에 이르자 쾌재를 부르면서 그야말로 못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극우반통일분자들이야말로 민족도 모르고 통일도 반대하는 사대매국노들이고 민족반역자들인 동시에 극악한 반통일분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죠. 그들은 결국은 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어서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이 열릴수록 더욱 단발마적인 발악을 할겁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사대매국역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자들을 하루빨리 제거하는게 상책이라고 할수 있죠.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이 땅의 호전적인 군부계층에서 연발하고 있는 이른바 주적론도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장애로 되는 제거대상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여부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이북을 제1주적으로 공공연히 선포하고 대북강경압살에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사대매국적인 군부호전광들은 미국에 아부하면서 이북을 주되는 적으로 규정한 주적개념을 절대로 변경시킬수 없다고 기회있을때마다 역설하고 있죠. 그들은 이북을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매도하는 폭언도 서슴지 않고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시피 남북간의 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세를 긴장시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열어나가는 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라고 할수 있는데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이로운 일은 못할망정 거기에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는 군부호전분자들의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고 지체없이 철회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거죠.

사회자 : 그렇죠.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현시기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는 또한 국가보안법이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애기 좀 해주시죠.

윤정원 : 내외가 일치하게 공인하듯이 국보법은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하는 장애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동족인 이북민중을 적으로 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국보법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서 관건적 지역인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하려는 군부파쇼정권에선 없어서는 안될 제도적 장치였어요. 그런데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어 민족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어서 통일애국에 칼질을 하고 있는건 정말 통탄할 일이고 한국의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절대다수국민은 국보법의 개정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물론 심지어 미국내에서까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바로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또하나의 장애물이 다름아닌 국보법이죠. 국보법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위해서 백해무익한 것으로써 하루빨리 폐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자 : 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또 오늘날 이 땅에서 무모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불장난소동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미국과 호전적인 군부당국은 올해 들어와서만도 무모한 북침전쟁훈련을 연이어 벌였는데요. 군부당국은 올해 1월과 4월, 5월에 걸쳐서 수차례의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였거든요. 지난 4월에는 극히 반북도발적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했고 얼마전에는 한미연합특공훈련이라는 것까지 벌였습니다. 군부당국은 지난 5월에 부산과 울산앞바다에서 함대기동훈련을 벌였고 공군사령부도 올해 산하 비행단과 포부대의 비상동원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전쟁연습들은 어느 것이나를 막론하고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실전연습으로써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악이 아닐수 없는 겁니다.

사회자 :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된걸 종합해보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철저히 짓부숴 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개가 짖어도 행렬은 나가기 마련이죠. 반통일역적들이 아무리 훼방을 해도 겨레의 숙원인 통일은 기필코 이룩되고야 말겁니다.



일본이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7월 13일 - 14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 지난 10일 가와시마 다카타 일본 외무차관은 주일한국대사와의 면담석상에서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재수정요구에 대해 현재 검정제도상 더 이상 재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앞서 지난 9일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기한 35개항에 대한 재수정요구에 대해 일부만 오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고칠수 없다는 것을 게나다주한일본대사를 통해 전달해왔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 우리 민중은 크게 분격하면서 일본정부당국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이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지난 5월초 일본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사용할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들을 국가검정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검정에서 통과시킨 역사교과서들은 과거일본이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범죄적 침략전쟁과 야수적 만행, 강도적 행위를 심히 미화하고 외면, 은폐했는데요.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검정에서 통과된 역사교과서는 초기한일관계사를 혹심하게 왜곡하면서 여러곳에서 이미 파산된지 오래인 이마나미야께설을 되풀이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마나미야께설이란 일본이 4세기 이후 수백년동안 우리 나라의 남부지역 임나(이마나)에서 일본군부(미야께)를 설치하고 지배했다는 주장인데 이 임나지배설은 이미 여지없이 풍지박산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교묘하게 되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고려가 몽고의 속국이였다고 서술했는가하면 과거일본이 우리 나라의 침략을 마치 안전을 위한 정당방위로 묘사하면서 정한론이나 강화도조약, 한일합병조약 등의 강도적인 침략행위를 합리화했어요.

또 근대적 개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역사도 완전히 왜곡했는데 그건 갑신정변이 마치 일본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처럼 만들어놓고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밑에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근대화, 민중의 안녕을 지향해 궐기한 대규모적인 반봉건반외세 농민전쟁인 갑오농민전쟁을 동학난이라면서 그의 반침략, 반일적성격을 거세하고 그 의의를 종교운동에 **시켰어요.

사회자 : 검정에서 통과된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죄악을 외면, 은폐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네, 그랬죠.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검정에서 통과된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정부는 한국의 병합이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고 썼고 우리 나라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는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 병합을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서술을 했죠. 역사교과서는 안중근이 이토오 히로부미를 만주의 하얼삔에서 암살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썼는가하면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을 약화시키고 반일의병투쟁과 전민족적 애국반일항쟁인 3.1민중봉기를 비롯한 각이한 형태의 반일투쟁을 무참히 탄압한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요. 종군위안부문제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탈적 침략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을 아시아의 전대륙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으로 의기



왕성해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거처럼 묘사를 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당시 우리 나라를 독립국으로 만들며 일본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인 듯이 묘사를 했죠. 이외에도 아시아지배야망이었던 대동아공영권의 목적이 아시아 각국의 자주독립, 각국의 *** 위한 ***있는 듯이 왜곡한 것을 비롯해서 왜곡서술된 항목이 50여개나 됩니다.

사회자 : 정말 분격하지 않을수 없는데요. 우리 겨레가 일본이 왜곡서술한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일본이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에 저지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고 올바로 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정부는 우리의 이같은 재수정요구를 외면하면서 오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개별적 단체나 회사가 주관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수 없다느니 뭐니하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리어 우리의 정당한 재수정요구에 대해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내정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91년 외무성산하단체를 통해 미국의 한 교과서가 원폭투하에 대한 미국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또다른 미국교과서에 대해서는 중일전쟁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달라고 주문해 사실왜곡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서방의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의 여러나라를 자유롭게 하려는 사명의식이 있었다고 써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파파뉴기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까지 한일합병은 침략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영토확장정책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집요성도 노정시켰는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재수정요구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도리어 항의하고 있으니 얼마나 파렴치한 작태입니까. 정말 분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정부당국자들은 우리의 재수정 요구에 대해 거부하면서 일본의 역사관이 한국의 역사관과 다르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일본당국자들이 말하는 저들의 역사관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말해서 군국주의적인 역사관이죠. 오히려 ***시각이예요. 그런데 일제의 *** 반동적인 역사관을 **거리며 심히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일본당국의 작태는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덕윤리에 대한 도전이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군국주의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회자 : 네, 일본당국은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해 자기들의 정치도덕수준의 저열성과 교활성, 파렴치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고 이로 인해 내외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당국자들이 무엇 때문에 왜곡서술한 왜곡교과서의 재수정요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원 : 그 저의는 우선 일본의 새 세대들로 하여금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게 해서 그들이 군국주의를 정신무장시킬수 있는 정신적 기초를 마련하려는데 있다고 봐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이 지역 나라들을 장악지배하려는 목적 밑에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력을 부단히 키워왔고 그래서 오늘 일본은 세계3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임의의 시각에 다른 나라를 침략할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사상정신적 준비뿐인데 이걸 위해 중학교용역사교과서를 왜곡서술해 주입하려는 거죠. 다음으로 그 저의는 과거일본이 저지른 죄악을 무마약화시키고 ****대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출판물들은 10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허탈감에 빠진 일본국민들에게 일본이 마치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 것처럼 인식시켜 힘을 주려는데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 정말 경악을 금할수 없는데요. 우리 겨레는 물론 아시아 여러나라 민중들이 저들의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너무나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도 왜곡해 새 세대들에게 주입하려는 일본당국의 범죄적 행위를 단죄규탄하며 강력히 응징하고 있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전교조 등 80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역사교과서재수정 요구를 거부한 일본당국을 규탄하며 집회와 시위, 일본상품불매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도 말로만 응징한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의 요구대로 오만하게 나오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시급히 취해야합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 민중입니다. 원래 왜놈들은 얼러서는 듣지 않아요. 세게 다불려야 합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외국민들이 그처럼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총리가 이번 8.15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가 하면 부당한 구실을 붙이며 우리 나라 어민들의 러시아근해에서의 꽁치잡이까지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어요. 이같은 사실들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 자그마한 환상이라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되고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마음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걸 말해준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민중은 어느때보다 경각심을 높이고 반미투쟁과 함께 반일투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한민전의 구국의소리 방송

(1053, 1135, 3480, 4120, 4450, 4557, 6010 kHz)





국보법 그대로 두고 통일할 수 없다

구국의 소리 7월 11일 -13일

희세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퍼렇게 살아 독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극악한 반통일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의 실체는 이미 그 출현초기에 드러난 것이지만요, 아직까지도 매장되지 않는건 기정당국자들의 그릇된 통일자세 때문이라 하겠죠. 그럼 이시간 첫순서로 ≪국보법 그대로 두고 통일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사회각계에서는 국가보안법이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그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걸 선언한 민족자주선언이고 대단결선언이며 통일지향선언입니다. 이 공동선언에 따라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면 남과 북, 해외 온겨레가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폭넓은 협력과 교류, 접촉과 내왕을 활성화해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법당국은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아 금강산에서 열린 통일대토론회에 참가신청을 낸 전 한총련대표 황선학우를 비롯한 6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선학우는 98년 한총련대표로 방북해 통일을 위해서 정말 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관계당국자는 6월 14일 이들은 수배중이거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재판계류, 집행유예, 형집행정지 등의 상태에서 방북을 신청했다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사법당국은 이들에 대한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성격으로 보나, 취지로 보나 황선학우는 당당한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에도 그를 국보법위반에 걸어 통일대토론회 참가를 막은 겁니다. 이건 국보법이 가장 반통일적 악법이고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낸 ≪2000년 국가보안법보고서≫에 의하면 6.15회담이후 구속자수가 회담이전보다 72%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찬양고무죄위반이 91%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국자들이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북을 주적으로 보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민중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통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얼마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기자연맹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서울선언≫은 이북을 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국제사회계에서까지 국보법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한반도평화정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건 마땅한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앞에선 통일을 하자고 하고 뒤에 돌아앉아선 여전히 딴꿈을 꾸는 이런 행위야말로 말과 실천이 다른 그릇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민족대단결의 직접적인 대상인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을 철폐는 커녕 그걸 휘둘러 계속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으니 이걸 통해서 당국의 반통일적인 자세를 잘 알 수 있는겁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통일의 큰 걸림돌입니다. 이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룰래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당국자들은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 그 무슨 통일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민중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똑바로 알고 내외민중의 요구대로 국보법을 당장 철폐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현 정치권의 반민족, 반통일적인 행태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으로 하루빨리 국보법을 철폐하도록 해야 할겁니다.

국보법철폐는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에 과감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매장해 버리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응분의 노력을 다해야 할겁니다.

현정치권은 시대와 민중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즉시적이고 무조건적인 철폐를 단행함으로써 충분한 통일자세를 보여줘야 할겁니다.

한민전의 구국의소리 방송

(1053, 1135, 3480, 4120, 4450, 4557, 6010 kHz)

김영삼 구속, 사법처리를 위한 제 단체들의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발신: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권희정열사추모사업회, 서부청년회(준)

0. 지난 4월부터 저희들은 안기부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김영삼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고발장접수, 1인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펼쳐왔습니다.

1. 이런 흐름으로 투쟁의 대열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단위에서 이 투쟁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실천적으로 각 단위에서 1인시위를 중심으로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들어가는 지금시기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각 계급, 계층단위에서 그 어느때보다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분위기를 훼손하려는 수구반통일세력에 대한 견제와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지금까지 투쟁의 흐름을 총화하고 투쟁을 보다 조직적이고 전일적으로 일구어가기 위해서 각 단위와 함께 허심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투쟁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4. 바쁘시겠지만 함께 서로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총화하고 역사와 민족의 요구에 답하기위한 소중한 자리인만큼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귀 단체의 발전과 안녕을 바랍니다.

김영삼 구속, 사법처리를 위한 제 단체 간담회

시간 :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해 6월27일 수요일 늦은3시
장소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사무실
(신촌지하철 8번출구-연락 011-9044-8150)
안건 : 기간투쟁총화 및 평가 / 앞으로의 투쟁계획공유

전국연합 자유게시판 2001-06-25

한총련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충청총련 자문위원회(가) 제안서

수신 : 대전충남 사회단체
발신 : 8기 충청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 8ccy@jinbo.net / 019 228 6005
일시 :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7월 13일

안녕하세요?
97년 한총련이 이적규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 항상 따스한 관심을 보내주시었던 대전충남 사회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6년 연세대 사건을 시작으로 학생운동 탄압은 실로 상상을 초월했으며, 한총련이라는 자주민주통일의 대중적 학생의 조직을 지키고자 97년 한총련 이적규정의 탄압속에서 수배로 조직을 지켜왔던 청년학생들이었습니다.
작년 역사적 6.15남북공동선언이후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북을 오고가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해가고 있으며 통일의 열기는 한반도 곳곳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총련 청년학생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사슬에 묶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 되어가고 있지만 한총련에게만은 아직 그렇지 안고 있습니다.
지난 청년학생들이 신성한 노동을 경험하고 농민분들의 삶을 알고자 농활을 진행하는 기간에 충남도경찰청는 충남대 4명, 한남대 2명, 배재대 1명, 순천향대 2명, 고대서창 3명의 한총련 학생회 대표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1차 소환이후 2차 소환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올해 한총련은 대의원 대회때 강령을 연방제라는 부분을 통일의 대중화와 건설적으로 나가기위해 6.15공동선언정신으로 개정하였으며, 합법적 투쟁을 공식입장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올초 서울 경기대 총학생회장과 서울 건국대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경찰에서 연행되었지만 검찰에서는 혐의가 미약해서 구속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한총련 이적규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예전에는 수배로 조직을 지켜 왔다라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한총련 이적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총련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정당성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좋은 의견을 받고 투쟁하고자 합니다.

- 한총련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충청총련 자문위원회(가)는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제도적 싸움을 전개하는데 있어 지지지원을 합니다.
통일의 걸림돌이자 6.15공동선언정신에 역행되는 국가보안법폐지투쟁에 청년학생들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7월 13일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총련 의장 박찬영

청년학생들은 통일운동의 앞자리에 서자

구국의 소리 7월 11일 -13일

우리 청년학생들은 당국의 매우 미온적인 통일자세,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겁니다. 어제도 그랬지만요, 오늘과 내일의 통일운동의 선봉에도 언제나 우리 청년학생들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엔 ≪청년학생들은 통일운동의 앞자리에 서자≫ 김현규씨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한총련은요,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한총련이 조국과 민족의 부름앞에 주저없이 나설 수 있는 것은 심장에 아로새긴 6.15남북공동선언이 있기 때문이며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피끓는 분노가 있기 때문이다. 한총련은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항상 맨 앞자리에 서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할 것이다≫라고 지적돼 있습니다.

이건 통일운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청년학생들의 지위와 역할, 그들이 시대와 역사앞에 지니고 있는 숭고한 의무를 반영한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투쟁의 선봉에는 언제나 청년학생들이 서있었습니다. 군사파쇼독재의 장막을 헤치고 소수의 통일운동을 다수의 통일운동으로 전환시킨 것도, 그리고 통일논의의 장을 투쟁의 장으로 이끌어 낸 것도 우리 청년학생들이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장장 반세기 꽁꽁 얼어붙었던 분단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고 통일의 물꼬를 낸 것도, 그리고 해마다 성대히 진행된 조국통일범민족대회에 자기들의 대표를 파견해서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뜨겁게 해주고 불패의 애국대오의 자랑스런 모습을 힘있게 시위한 것도 다름아닌 우리 청년학생들이였습니다.

더욱이 21세기 통일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서 청춘의 지혜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한총련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은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통일의 사자, 통일의 꽃, 통일의 희망새, 통일 선봉장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달아 주었던겁니다.

지금 칠천만 온겨레는 6.15공동선언을 현시기 민족의 진로를 좌우하는 위대한 민족자존의 대헌장이라고 하면서 그 이행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특히 온 민족은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정하고 21세기 첫해인 올해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통일의 선봉장인 우리 청년학생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겨레의 통일대행진에 앞장에서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과감하고 애국에 열렬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민중의 요구에 부응해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선봉에 서야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민족자주선언이고 민족대단결선언입니다. 민족자주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년학생들은 불평등한한 미행정협정파기와 주한미군철수, 미군기지반환, 양민학살만행진상규명과 사죄보상 등 반미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 올려야할 겁니다. 이와 함께 동족인 북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 등, 대북강경책동으로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미국의 반북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셔야 할겁니다.

다음으로 청년학생들은 민족대단결의 선봉에 서야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이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입니다. 그러자면 범민련남측본부와 전국연합 등 통일애국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통일운동대오의 분열을 막고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전농을 비롯한 자주적 민주노농단체들과 재야단체들과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실현해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을 통일운동대오에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겁니다. 또한 남과 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내왕과 접촉을 통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서도 청년학생들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봅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파쇼악법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존재하면서 우리 민중의 통일운동과 민족의 단합에 저애를 주고 있습니다. 동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겨레의 통일운동도, 화해와 단합도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과감히 벌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대문에 걸린 빗장을 벗겨버려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관철투쟁에서 선봉대로써의 중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민족민주운동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발췌문



53년만에 ≪우리 민족끼리≫ 다시 만난 전민족적 정치회합

6.15공동선언 발표 이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았는가? 감동과 흥분을 느끼었을 뿐인가. 그렇지 않다. 남 · 북 · 해외의 사회단체 대표들은 한 자리에서 만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접 체험하였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정치적 의의다. 그 토론회는 2000년 6월의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에 의해서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일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이 없었다면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이 전민족적 차원에서 커다란 실천력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입증하였다. 그 토론회는 앞으로 한(조선)민족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추진하게 될 일련의 전민족적 정치회합의 문을 열고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민족통일대토론회의 민족사적 의의다. 그 토론회는 1948년 4월의 연석회의가 후대에게 남겨놓은 역사적 과업을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승하였다는 데서 민족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 토론회가 계승한 역사적 과업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만나서 능히 단합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만나서 힘을 합해야 우리 민족의 문제, 곧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을 타파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948년의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문서 ≪전 조선동포에게 격함≫은 ≪우리 조국강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하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라!≫고 호소하였으며, 이번에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자주통일의 근본담보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공동선언의 제1항을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다시 천명한 것이다.

셋째,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한(조선)민족에게 제기되어 있는 민족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토론한 민족문제란 무엇인가? 그 토론회장에 내걸렸던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민족문제의 본질은 민족자주, 조국통일, 화해협력이라는 세 가지 구호로 집약된다. 이 세 가지 구호의 대척점에는 제국주의, 분단체제, 민족분열주의라는 적대적 개념이 도사리고 있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민족자주라는 구호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자주의 과업으로 제시되었다면, 화해협력이라는 구호는 민족분열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화해의 과업으로, 조국통일이라는 구호는 민족자주와 민족화해에 의하여, 그것을 통하여 실현되는 역사적 과업으로 각각 제시되었다. 그 토론회장에 내걸린 세 가지 구호는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집약한 구호였다.

한 마디로 말하여,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난 전민족적인 정치회합이었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생겨나는 민족의 힘을 나라 안팎에 과시한 역사적인 회합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민족통일대토론회가 남과 북의 사회단체들이 만난 ≪토론회≫였다고 간단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는 피상적인 관찰에서 나온 오류이다. 그것은 비록 토론회의 형식을 빌려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

민족적인 정치회합이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까닭은, 그 회합이 3대 지역의 사회정치세력이 만난 전민족적인 회합이었으며, 동시에 3대 사회정치세력이 만난 정치회합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3대 지역의 사회정치세력이 만난 전민족적인 회합이라는 말은 남 · 북 · 해외 3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정치세력이 만났다는 뜻이다. 1948년의 연석회의가 남과 북의 사회정치세력이 만나는 정치회합이었던 것에 비하여 2001년의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남 · 북 · 해외 3개 지역의 사회정치세력이 만나는 전민족적 정치회합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53년 동안 한(조선)민족의 내부구성이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해외 여러 지역에는 약 500만 명이 더 되는 해외동포사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해외동포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해외의 여러 사회단체들을 대표하는 20명이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였다.

둘째, 3대 사회정치세력이 만난 정치회합이라는 말은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이 만났다는 뜻이다. 분단시대 초기였던 1948년의 연석회의가 사회주의혁명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의 정치회합이었던 것에 비하여, 분단시대 말기인 2001년의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사회주의혁명세력, 민족민주운동세력, 민족주의운동세력의 3자 정치회합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1948년부터 지금까지 5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한(조선)민족 내부의 사상 · 이념적 지형이 좀더 복잡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 사상 · 이념적 지형은 주체사상, 민족민주운동이념, 민족주의이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제국주의, 친미사대주의, 부르주아사상이 적대적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사회정치세력이며,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자주 · 민주 · 통일의 강령으로 표현되는 민족민주운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정치세력이다. 그리고 남(한국)의 민족주의운동세력은 민족주의를 신봉하거나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회정치세력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특히 남(한국)에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좌파세력≫은 이 두 세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또는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민족주의운동세력이라고 통틀어 부르고 있는 데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이 두 세력의 차이는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세력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한(조선)민족의 역사로부터 자기에게 부여된 지위, 역할, 임무가 민족주의운동세력의 지위, 역할, 임무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정세변화에 따라 동요하기 쉬운 민족주의운동세력을 견인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을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자신을 장성시킬 수 있으며, 그 불패의 역량으로 민족주의운동세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몇 가지 차이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남(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대 계급운동세력인 노동계급운동과 농민계급운동의 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자주 · 민주 · 통일의 강령을 구현하려는 정당과 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정치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족주의운동세력은 소자산계급적 성향의 사회단체,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의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족주의운동세력은 단일한 지휘체계, 단결된 조직체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다.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민족주의운동세력의 갈래를 크게 나누면 대략 좌파와 우파로 구분된다. 민족주의운동의 좌파는 남북 사이의 정치적 화해를 추구하는 세력이고 그 우파는 남북 사이의 비정치적 교류 ·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민족주의운동세력의 내부가 이처럼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주된 원인은 민족주의가 단일한 지휘체계, 단결된 조직체계를 꺼려하는 소자산계급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계급, 농민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각각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데 반하여, 소자산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분산적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자기의 계급적 성향과 그 한계 때문에 식민지 민중(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계급적 요구를 경시하거나 외면했던 민족주의운동세력은 점차 쇠퇴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세력은 나중에 민족주의운동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반제민족해방운동으로 전환 · 포섭되었다.

둘째, 남(한국)의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은 서로 이념적 친화성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하여, 남(한국)의 민족주의운동세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은 그러한 이념적 친화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이념적 친화성에 대해서 반통일세력은 ≪친북≫이니 ≪이적≫이니 떠들며 마치 난리가 터진 것처럼 소동을 피우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사회주의혁명세력이 사상이 서로 다른 데도 이념적 친화성을 지니게 되는 원인은 그 두 세력이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을 반대 · 배격하는 민족적 단결에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념적 친화성은 그 두 세력이 민족대단결사상을 사상적 공통성으로 지니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남(한국)의 민족주의운동세력도 민족적 단결에 대해서 때로 말하고 있지만, 민족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민족적 단결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내용이 빈약할 뿐 아니라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은 민족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감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민족주의운동세력도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마찬가지로 민족대단결사상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자주의 과업과 민족화해의 과업을 모두 포괄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한(조선)민족의 민족자주와 민족화해의 과업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대단결사상에 의해서 완수될 것이다.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주의도 포괄하고 있다.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반역세력을 제외한 모든 민족성원의 이익과 요구를 포괄하는 폭넓은 사상이며,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사상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이념적 친화성이 민족대단결사상의 공통성에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친북≫이니 ≪이적≫이니 하는 공격과 배척을 들이대는 세력이야말로 민족분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혀야 한다.

셋째,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친미예속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민족주의운동세력에게는 그러한 전략목표가 없다. 민족주의운동세력에게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략목표가 없으므로 친미예속정권에 대한 투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정세가 불리하면 그 정권에 대한 태도가 타협이나 투항으로 흐르기 쉽다.

넷째,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은 다같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있지만, 전자는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을 반대하는 민족자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몰계급적인 반외세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 사이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차이가 가로놓여 있지만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세력을 만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북녘땅을 찾았고 민족자주, 화해협력,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마침내 3자 화해의 손을 잡았다.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이 3대 세력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성사된 민족화해의 정치회합이었다.

(2001년 6월 25일 작성)

6월의 노래

구국의 소리 6월 15일 / 이영훈



6월의 노래는 격정의 노래다
그토록 지겹던 50여년의 분단동토
김정일영도자님의 햇빛같은 미소속에
싸그리 싸그리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너, 나, 남북겨레의 그 모든 가슴가슴에
울컥 더운 것이 치밀어 오르던

6월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다
금수강산 이 땅의 허리를 너무도 추하게 묶어 놓은
600리 저 휴전선의 콘크리트장벽
이제금 물먹은 흙벽처럼 무너지고
북쪽 갑산고을 남쪽 빛고을 그 어데든
생각나면 오간다는 희망속에 가슴 부푼다

6월의 노래는 고마움의 노래다
이 나라의 존엄이고 빛이고 희망이신
그렇듯 명망높으신 **김정일**장군님
자애로운 우리집 어버이되시어
여기 남도땅 온 집집에 우리 가슴가슴에
스스럼없이 찾아와주시니

오– 6월의 노래는 맹세의 노래다
김정일장군님 친히 서명해주신 6.15남북공동선언
그 역사적인 통일불씨
이제금 그 어떤 광풍 휘몰아친데도
한목숨 던져서라도 지켜낼 의지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데
어찌 우리 가슴이 맹세로 끓지 않으랴

55년의 그 차디차던 분단
단 55시간만의 만남으로 뜨겁게 넘으시며
기대와 긴장속에 얼어 있던 7천만 그 모든 가슴에
그토록 뜨거운 환희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안겨주시던 그 은정
참으로 역사에 없던 은정이었노니

아–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잠못들던 서울 거리여
온 남도땅 굽이굽이에 차넘치던 격정
거기 대학가에 나부끼던 인공기여
한없이 밝으신 미소 너무도 황홀하던
경복궁앞 거리에 모셨던 그분의 영상이여

버스터미널, 달리는 객실안에서
호남선 열차안에서
서귀포모래톱에서
껵껵 숨막혀오는 격정속에 듣던
그분의 음성이여

뉘라서 그 6월이 갔다하겠나
뉘라서 그날의 더운 숨결 식어졌다고–
오호– 6월
온 겨레가 부둥켜 안고 기쁨에 겨워 흐느끼던 그 6월은
오늘도 내 가슴속에 너무도 뜨겁나니
흘러가는 세월속에 더더욱 뜨겁기만 하노니

아니, 아니다
6월은 가지 않았다
6월은 너, 나, 우리 겨레 모두의 가슴속에
통일애국의 더운 불씨되어 오늘도 힘차게 맥박치고
남북해외 단결의 열망속에 오늘도 뜨겁기만 하노니

오호– 우리 이 6월속에 산다
그날의 후더운 숨결, 그 역사적인 통일숨결로 숨쉬며
이 6월을 펼쳤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민족사랑
그렇듯 빛나던 그분의 미소속에 우리 산다
여기 남도 땅에 울려 퍼지던 환호
통일의 그 6월속에 우리 사노니

그래서 뜨거운 6월의 노래
그래서 쉼없는 6월의 노래
그래서 아름다운 6월의 노래
그것은 21세기에 펼쳐질 우렁찬 통일행진곡이다
오– 그것은, 그것은
21세기 통일강성대국 떠올려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역사의 송가이다

연방제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도

인터넷 구국전선 7월 11일자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 선언이다.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이래 남과 북이 처음으로 공동의 통일방도와 목표를 확정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하여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이다.

남과 북은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살려 통일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

연방제는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것은 연방제방식의 통일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남과 북의 어느 일방이나 특정 당파, 계급,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불행과 고통을 겪는 온 민족을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적 지위에 놓고 그 누구의 이익도 침해함이 없이 공정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자면 계급적 이해를 달리 하는 남과 북의 모든 계급, 계층, 각당, 각파가 다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남과 북에는 반세기이상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 오고 있으며 누구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밖에 없다.

남과 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용납하고 공존하는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여기에 연방제통일의 합리성과 공명정대성이 있다.

연방제통일은 현실적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현존하는 남북의 차이점들은 결코 민족이 영원히 갈라져야 할 그 어떤 이유로도 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한 핏줄을 이어 받고 한 강토위에서 반만년을 살아오는 단일민족이다.

유구한 역사로 이어져온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국가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민족국가인 중국에서도 홍콩과 마카오는 자기 제도를 유지하면서 통일국가안에서 공존, 공영하고 있다.

연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도 남과 북의 정부들은 각기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자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연방제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남과 북이 자주의 원칙을 지키고 민족끼리 공조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연방제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다.

연방제통일방식은 그 당위성으로 하여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방제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의지와 염원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다. 7천만 온 겨레는 통일연방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야 할 것이다.

<노 선 일>
Http://www.ndfsk.dyn.to



통일전선에 대한 주체적 견해

구국의 소리 7월 10일-13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이한 뜻깊은 때인 지난 6월, 민족분열이래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각 정당단체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남북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결해서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이면 조국통일의 날도 앞당겨 질겁니다.

그래서 이시간에는요, ≪통일전선에 대한 주체적 견해≫에 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군중이 어떻게 단합 결속되는가에 따라서 대중운동의 승패가,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의 진전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통일전선은 노동대중을 위시해서 대중운동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계층의 민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시키는 정치적 조직을 형성하는 문제, 다시말해서 대중운동의 보조역량을 편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체의 이론에서는요, 바로 통일전선이 노동자계급이 그 대중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이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연합해서 대중운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문제라는 걸 새롭게 명시했어요.

사회자 : 그럼 통일전선에 대한 주체적 견해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통일전선을 그 어떤 전술적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그 전위조직이 대중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이한 계급계층과 정당단체들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전략적 문제로 보는 것, 바로 이게 통일전선에 대한 주체적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통일전선형성문제에 대해 선행고전가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돌렸어요.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가들은 통일전선을 재야부르죠아당들과의 전술적 동맹문제, 당면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민주세력과의 일시적 동맹문제, 또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노동자들과의 하층통일전선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통일전선을 이같이 전략문제로서가 아니라 전술문제로 제기한건 주지의 사실이죠. 이로부터 코민테른문헌도 통일전선을 프롤레타리아당의 전술의 구성부분으로 규정을 하면서 ≪통일전선전술은 자본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투쟁하고 대중을 계급적으로 동원하여 개량주의자의 상층부를 폭로, 고립시키는 수단으로서 혁명이전의 전체시기를 통해 공산당전술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과 그에 기초한 코민테른의 문헌들은 또한 식민지예속국들에서의 반제통일전선에 대해서도 그것을 민족부르죠아지와의 일시적 동맹문제로 취급을 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통일전선문제를 노동자계급과 그 전위조직이 일정한 계급, 계층, 그리고 반정부적 정당, 정파들과의 일시적인 동맹을 결성하는 전술적 문제로 제기했다 그 말씀이시죠.

선행고전가들의 이같은 사상과 이론에 기초해서 통일전선운동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졌죠.

윤정원 : 그렇습니다. 1930년대 중엽 유럽에서 프랑스와 이태리 공산당들의 발기에 의해 벌어진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은요, 사회당이 공산당과 함께 반파쑈투쟁에서 행동통일을 보장하는 협약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것이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아시아에서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이 벌어졌죠.

유럽에서의 인민전선과 아시아에서의 민족통일전선은 다같이 파쑈전과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그 본질은 같았어요. 그러나 그 형태에선 매개 나라들이 처한 구체적 실정에 따라 상호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같은 통일전선운동은 모두가 노동자계급의 당이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시기에 반정부적인 재야당과 맺은 일시적인 전술적 동맹이였던거죠. 그래서 이 통일전선운동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각국 노동자계급과 근로민중들을 반전반파쑈 투쟁에로 분기시키는데서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군중을 단일한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워 변혁운동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시대에 와서 민족적, 계급적 예속을 반대하는 변혁운동의 사회적 지반이 비할바 없이 확대되구요,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크게 성장해서 노동자계급과 그 전위대가 광범위한 중간계급, 계층을 동반자로 만들어 사회변혁운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조성됐잖아요.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현시대에 와서요 선행시기보다 변혁운동의 규모가 세계적 범위에서 비할바 없이 확대되고 계급구성이 매우 복잡한 식민지예속국가들의 문제가 전면에 나섰어요. 또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약탈이 더 악랄하게 감행된 것과 관련해서 이 나라들에서 변혁운동에 더많은 계급계층이 이해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런가하면 현시대에 와서 선행시기보다 매개나라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비할바 없이 강해지고 어떠한 동맹자도 능히 이끌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것은 현시대에 와서 중간계급계층을 전취하는 문제가 선행시기와는 다르게 변혁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전선문제는 광범위한 각계층 군중을 전취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변혁운동역량을 튼튼히 꾸리며 변혁운동의 종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전략적 문제로 제기되는거죠.

주체의 변혁이론은 현시대의 새로운 역사적 여건에 대한 통찰과 변혁운동실천경험의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서 통일전선문제가 기존 이론에서와 같이 전술적 문제로서가 아니라 전략적 문제로 제기된다는 걸 밝혔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요 지난시기 운동권의 일부사람들이 기존 이론을 교조적으로 답습해서 통일전선을 전술적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었죠. 민중민주주의이론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그 이론은 통일전선을 전술적인 공동투쟁, 연대투쟁의 틀로써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계급론적 시각에서 통일전선을 전술적 문제로 고찰하는 견해구요,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을 교조적으로 답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전선은 이같이 민중민주주의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변혁운동의 전술적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무기예요. 그러므로 통일전선을 전술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시각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합니다.

사회자 : 그러나 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 무기인 통일전선은 그걸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걸 잊어선 안돼죠. 그것이 다름아닌 통일전선전술이라 하겠는데요. 여기서 통일전선의 전략적 지위와 통일전선실현을 위한 전술, 그 양자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소여 운동단계의 전기간에 실현되는 통일전선을 전략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전술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운동실천에서 큰 오류를 상생시킬 수 있구요, 운동역량편성을 위한 사업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사회자 :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을 하나의 정치적역량으로 결속시킬 수 없으며 반동세력에 비한 운동세력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대중운동의 승리에 대해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이땅에서 통일전선문제는 전략적 문제로 된다하겠죠.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땅에서 통일전선은 노동자계급이 중간계급계층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게 아니라 대중운동이 승리할때까지 손잡고 같이 나가며 통일위업수행에 서로 합심, 협력해서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같이 싸워나가기 위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전선을 전략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중간세력에 대한 일시적 이용전술문제로 사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전선이 대중운동역량의 효율적인 편성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능적인 책략이라고 악선전하는 반동지배층에게 언질을 주는 등 대중운동실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환을 초래하게 될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통일전선의 형성은 첫째로 광범위한 각계층 민중을 조직화함으로써 반변혁세력을 고립시키고 변혁운동세력의 압도적 우세를 조성하게 하며, 둘째론 변혁운동의 주력군에 대한 반변혁적 분쇄를 파탄시키고 그를 보호하는 변혁운동의 보조역량을 편성할 수 있게 하구요, 셋째로는 변혁운동의 주력군과 보조역량의 공고한 연합을 조직화해서 주체적 변혁운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주체적 시각에서 볼때 이땅에서의 통일전선형성은 대중운동의 전략적 요구이며 대중운동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조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죠. 그러므로 통일전선을 전략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전술적 문제로 보는 견해와 주장들을 제때에 극복해 나가야 할겁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통일전선의 대한 주체적 견해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체 90, 7월 8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돌에 즈음해 중국주재 이북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심심한 애도의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일성**주석님의 입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김일성**주석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김일성**주석님의 위훈을 높이 받들고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7일 토지정리 등 황해남도 태탄군 류정협동농장과 재령군 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으며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사진업자 양모씨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돌에 대해 주석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첩을 제작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는 각계 민중들은 주석님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평양하늘을 우러러 옷깃을 여미며 삼가 영생기원의 큰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돌에 즈음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민족콩고 진정한 루뭄바주의투사민족운동, 민주콩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 우간다 참보고사범대학 교원들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오스트리아공산주의자들의 **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들에서 회고모임들이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7월 9일

각계 민중들 속에서 광폭정치로 칠천만겨레를 묶어세우시고 통일위업실현에로 현명하게 영도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모교수는 ≪역사적인 평양상봉때에 나는 TV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모습을 뵙는 순간 첫눈에 온 민족을 떠안으실 분은 저분이시다라고 느꼈다. 민족의 미래를 맡길 분은 바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심을 나는 굳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모씨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인정미에 **그분은 참으로 칠천만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이시다. 정말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통일의 영수이시구나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재야인사 정모씨는 ≪그분의 정치는 겨레사랑, 민족사랑의 정치이기 때문에 지난날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재벌들까지도 그분의 품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 박진우씨는 ≪이 세상에 **김정일**장군님처럼 너그러우시고 아량있는 분은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족대단결경륜이 낳은 또하나의 특이할 화폭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그분의 광폭정치, 인덕정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뜨거운 민족사랑, 겨레사랑의 정치인가를 더욱 절감하게 된다≫고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8일 평양시에 있는 담배연합회사, 경련애국사이다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0, 7월 10일

지난 8일 광주시에 사는 이철민퇴직교수가 제자들과 마주앉아 세계명인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중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민주권리와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집회들이 경향각지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는 7일 오후 광주역광장에서 노조원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생존권쟁취 및 민족자주실현 제2차 민중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경북대구지역본부는 경주역 광장에서 조합원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탄압 및 세광공업위장폐업규탄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신자유주의**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7일 오후 3시 청주 상장공원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탄압분쇄노동자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교과서채택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9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교과서수정요구를 거부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각계 민중들 속에서 최근 일본정부가 왜곡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 민중의 재수정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운동가 강조식씨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냈습니다.

그는 그래서 지난해에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온 겨레가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은 하나의 핏줄이며 하나의 민족인 우리 민족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분열을 기화로 온갖 특혜와 권리를 누려온 보수세력과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통일을 실현하자면 남과 북이 통일열망을 한데모아 6.15공동선언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소식통에 따르면 미해군의 유일한 기대전 지휘함인 인천함이 참가하는 한미연합기대전훈련이 10일부터 부산앞바다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중국친선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연대성전문이 6월 22일 불가리아의 쏘피아와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에서 진행된 조선민중과의 국제적 연대성월간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주체 90, 7월 11일

지난 6월 14일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이영준 주민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9일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규탄집회에는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해 일본의 역사왜곡 재수정거부가 한국정부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7월 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철회를 위해 일본교회와 일본양심세력과 연대하고 세계교회 등 가능한 모든 통로를 동원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야하야 자카

리아 하이칼라브위원장은 지난 3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인류의 심장속에 길이 빛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체사상의 창시는 인류에게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앞길을 밝혀준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다가스까르 무니마사회주의조직(당), 무니마사회주의조직서기장은 담화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수많은 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해 오셨으며 조선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도자께서 계심으로해서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6월 29일과 30일, 전인도농업근로자동맹, 백두산 **조선친선협회 마다가스까르 주체적문예사상연구학회에서 회고모임들이 진행됐습니다.

마다가스까르 주체적문예사상연구학회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의 역사는 사상과 영도, 풍모에서 주석각하와 똑같으신 **김정일**영도자에 의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리비아 가트의료단, 인도네시아 피트라비트라 다오페라회사, 러시아의 모스크바 철도제3객차대에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영화감상회와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됐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아시아지역***조선통일지지아시아**위원회와, 조선통일지지 네팔위원회 공동주최로 지난달 30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진행됐습니다.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과 조선민중과 국제적 연대성월간에 즈음해 요르단 민족**요르단에 있는 조선민중과의 연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 및 국제위원회, 국제**주의를 반대하는 국제이슬람교 세계인의 *****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7월 12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1일 황해북도에서 새로 건설한 버만양어장과 버만발전소, 버만협동농장의 문화주택마을을 현지지도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서울시 경찰당국이 8일, 범청학련 남측본부대변인 황선씨를 체포연행한 것과 관련해 통일운동단체들이 8일과 9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우리 나라 남북과 중국, 일본의 유명역사학자 30여명이 일본의 왜곡역사교과서채택에 항의하는 가칭 남북한 및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성인포럼을 결성키로하는 등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일제징용과 종군피해여성유가족모임인 2차대전피해배상청구한인연합회는 일본의 전범행위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8년말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의해 색깔논쟁에 휘말린뒤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났던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1년반만에 당시 상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노조가 11일 24시간 시한부파업을 벌였습니다.

한국일보노조는 11일 오전 9시에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본사에서 사주일가 퇴진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것과 퇴직금 원상복구, 그리고 임금인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캄보디아 국왕이 이 나라 주재 이북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3일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에서 불레찐 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국제조총련이 7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회고모임인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체 90, 7월 13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7월 12일 조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이북을 방문한 중국공산당정치국위원인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강춘원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친선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발표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정치인대표로 참가했던 이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동료들과 함께 통일대토론회에 참가했던 인상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강산에서의 2일간은 온 민족이 하나로 된 모습을 보여준 뜻깊은 나날이였다.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대표가 모이니 서로 정이 통하고 통일의지도 하나같았다. 민족분단사에 특기할 이번의 만남의 광장을 통해 **김정일**영도자님의 통일경륜를 더욱 깊이 알게되니 그분께 무어라 감사드렸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정녕 **김정일**영도자님이시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실천으로 이끌어가시는 통일장군이시다.≫

그는 계속해서 영도자님께서 계셔서 통일은 확정적이라며 그분의 통일의지를 높이 받들고6.15공동선언이행에 열과 성을 다할 결의를 피력해 동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전국 273개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7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상황을 우려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중단없는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정권출범 3년반이 지난 지금 개혁은 실종됐다며 현정권은 이제라도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민주노총에 대한 와해공작 및 노동탄압중지, 민중사회단체 생존권 및 개혁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중지, 국가보안법폐지 및 집시법개정, 인터넷규제조치 중단, 사립학교법개정, 탈세언론사 및 비리언론사주 엄정처리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민주노총 등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이근식행정자치부장관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언론개혁을 호도하는 정치권의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집회에서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언론사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호도하며 색깔론과 지역주의까지 끌어들여 국민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언론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하지만 탈세비리언론사주의 자유마저 보장되어서는 안된다며 해당 언론과 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의 본뜻을 흐리게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추징내역을 공개하고 독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13일자 신문 1면기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11억 6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는 결정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지만 세법해석상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권리부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파쇼독재를 반대하고 사회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독재자들의 탄압을 받은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추진에 반대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보수파의원모임인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강력히 항의규탄하면서 군부독재, 반통일을 획책하며 민족과 민중에게 해만 주는 한나라당의 보수파의원들은 정계에서 시급히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청교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우익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왜곡서술한 역사교과서를 선전하는 전면광고가 11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실렸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과 민단계 청년단체들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달말로 예정돼 있던 시장 등의 일본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반발해서 담배도매상들이 잇따라 일본담배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일본담배를 취급하는 40여개 도매상 가운데서 30여개 업주들이 일본의 역사왜곡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12일부터 일본담배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과 일본의 아사히신문 지난 12일자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 러시아신문 파트리어트,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쿠바신문 그란나, 네팔신문 말리카, 폴란드신문 트리부다, 탄자니아신문 데일리뉴스와 오스트리아, 리비아, 기니, 라오스의 통신들, 영국, 몰타, 루마니아, 페루, 캄보디아, 싱가폴, 적도기니의 라디오 및 TV방송들을 비롯해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200여개 출판보도물들이 저작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했습니다.

신문, 통신방송들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저작에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며 지상의 과제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해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신데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편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서기국,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조선통일지지 기니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단체와 **들, 국제기구들에서는 저작을 불레찐 또는 단행본으로 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저작에 대한 국제적인 반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채택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니신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천리혜안의 예지, 넓은 포옹력과 아량의 결과라면서 이 역사적 사변들을 통해 민족대단결기치인 이 저작의 정당성과 활력은 보다 뚜렷히 실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체 90, 7월 14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2일 상신브레이크, 대우자동차 등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구조조정과 관련한 분규가 계속되는 업체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연맹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12일 낮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조직부장을 구속한데 항의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반대투쟁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주에서는 12일 역사왜곡규탄집회가 열리고 일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각계 국민들속에서 언론사세무조사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비리언론사주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À±Á¤¿ø : 아시다시피 어느 부문의 기업보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언론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마땅히 내야할 세금까지 내지않고 잘라먹어 사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한 세금을 받아내며 탈세혐의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당국이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됐고 적지 않은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탈세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리근절 차원에서 뿐 아니라 언론사들의 이미지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뿐 아니라 일선 기자들도 언론사세무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간신문인 미디어오늘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동안 전국의 신문방송기자 41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4%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잘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느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느니하면서 반대하는가 하면 심지어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색깔론까지 들고나오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까지 방해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이회창총재를 보수파동맹의 거두, 보수언론의 대변인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언론사세무조사와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비리언론사주에 대한 처벌과 이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교조, 민주노총 등 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지난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가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의 고비마다 발목을 잡고 또 민족화해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과 군사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려는데 골몰해왔다고 비난했구요. 또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의 일가가 시대의 세금도둑으로 드러났는데도 언론탄압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리언론사주들의 처벌과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동아투위도 비리혐의가 드러난 동아일보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신문개혁국민행동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집회를 갖고 언론개혁을 호도하는 정치권의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집회에서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언론사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호도하며 색깔론과 지역주의까지 끌어들여 국민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로스엔젤리스한인회 등 120여개 한인단체들은 11일 일본역사교과서왜곡 수정을 위해 오는 9월 유엔본부앞에서 대대적인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구국의 소리